제 목 : 경력직이라서, 나이가 많아서 두렵다고요 ! 아니요 새로운곳에서의 시작은 누구나 신입사원입니다. 그러기에 배우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취업·창업·채용 우수사례 공모전

저처럼 육아 및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위해 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불혹의 기준인 40대 중반의 여성이며 딸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저에게도 승진을 꿈꾸며 열심히 꿈을 향해 도전했던 시절도,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직장이 있는 타지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 육아와 남편의 내조를 하며 보내다가 문득 이효정 제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사회로써의 끈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남편과 주말부부를 유지하다가, 남편이 회사 기숙사가 만료되면서, 가족과 함께 보금자리를 시작하고 싶다는 설득에, 마침 아이가 8살이 되어서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 들어가는 시기라 많은 고민 끝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대전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큰아이가 1학년 입학하는 시기여서 엄마의 손도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두 아이 케어만으로도 바빴기에 저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1학년 큰아이를 픽업하며 만난 엄마들과의 사회에서 차를 마시고 브런치 맛집을 찾아다니는 새로운 재미도 저의 삶의 새로운 만족감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그동안 업무적으로 노력했던 저의 커리어들이 다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 엄마 보다는 "이○○"이름 석자로 불리어지며 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같이 도서관이나 커피숍에서 아이는 책을 읽고 숙제를 하며 보람차게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그 2시간 마저 '나는 뭘하지?, 어떤 책을 읽지?, 이 책을 읽으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라는 독서의 필요성을 먼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스스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제 마음의 방황이 찾아왔을 때여서 그런지 그전이라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아이의 말도 제 마음의 상처를 찌르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아이에게 학교 갈 준비물을 미리 챙기라고 말했더니, 큰아이가 준비물을 못 챙겨도 "엄마가 가져다주면 되잖아!" 이 작은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렀던 저의 감정이 폭발했었나 봅니다. 아이에게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이를 향한 마음이 아닌 제 자신의 말들로 그동안 억눌렀던 저만의 감정을 아이에게 토해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토해내다 보니 문득 정신이 들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강한욕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컴퓨터를 켜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기업에서 경영지원 부서에서 과장까지 했던 저는 자만했었습니다. 취업도 눈을 조금만 낮춰서 지원하면, 금방 취업이 될 거라는 생각에, 회사의

복지 및 규모를 보며 원서를 냈지만 매번 면접의 기회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보내다가 문득 "뭐가 잘못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의 연습장을 발견하고는 거기에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육아환경, 제가 기존회사에서 했던 직무들, 커리어 자격증 등을 쭈욱 써내려 가다보니 연봉도, 회사규모도 기존 회사와 비교하며 원서를 넣었던 제 자신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기업만의 경력으로 시스템과 매뉴얼이 다 만들어진 회사에서 만들었던 저의 커리어가 중소기업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많은 곳에 원서를 내며 면접의 기회까지는 못 만든 저는, 저를 다른 방법으로 어필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썼습니다. 기존에 제 자기소개서는 대기업에서 인재상을 받고 회사에서 원하던 영어 점수 및 회사 내부의 자격사항을 습득한 것이 나열되었었다면, 다시 고친 자기소개서는 저 자신의 상품성을 내세우기보다는 회사에서 겪었던 경험담 중심으로 바꾸어서 다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확정예정이었던 구두 계약이 문서의 날인까지 닫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통보를 받고 동료들과 다시 자료를 밤을 지새우며 합심하여 만들고, 저희회사가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거래처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며 힘들게 만나 PPT 기회를 만들어 다시 마음을 돌려 날인된 계약으로 연결시켜서 낸 일들을 저 자신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만든 일들을 떠올리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전의 받았던 연봉이나 복지를 떠올리기 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육아환경 내에서 집에서 가까워야 하고, 정시퇴근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 중간에도 전화 통화나 메시지가 가능한 곳으로 취업기준을 세워서 원서를 낸 것이 면접으로 이어졌고, 취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모두 만족할 수는 없기에 워킹맘인 제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준(육아)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다른 조건, 급여 및 복지가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모자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업을 꿈꾸는 경력단절 여성분들도 다 가지겠다는 마음보다는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기준을 정하시고 취업의 노선을 정하셨으면 합니다.

취업하고 나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회사의 문화, 직원들이 직접청소,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사용한 수건을 돌아가면서 집에서 세탁해서 가져오는 일, 5월1일 근로자의 날 출근 등이 있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족 같은 친근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생각하려 애쓰며, 3년만 신입사원의 자세로 일을 배워보자 라는 생각으로 적응해갔습니다.

종전 대기업에서 근무했을 때는 제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시험(영어성적, 독후감 쓰기, PPT발표 능력 등 전문성)등이 중요했다면, 중소기업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의 다양성이 중요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업무(자동차 등기이전, 사내대표이사변경 및 주소이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회계처리, 4대 보험 등재부터 직원들이 요청하는 경력증

명서, 원천징수명세서, 인사에서 총무, 회계경영 등)을 직접 챙기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입사 후 처음에는 작은 업무가 주어져도 경험해보지 못한 업무라 두려움이 들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체 인터넷을 찾아가며 업무를 진행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많았지만, 제 자신을 경력사원이 아닌 신입사원이라 생각하면서 업무가 제게 주어지면 인터넷으로 최대한 정보를 찾은 뒤에 동료 및 선배들에게 업무의 방법 및 흐름의 진행 상황을 재확인하며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보니 회사의 발전과 함께 제 자신의 발전을 함께 꾀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겨 자격증 공부, 회사의 특성상 전기 자격증이 있으면 회사의 도면이나 설계도등 업무를 이해할 수 있어 업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전기기능사를 도전하여서, 필기는 합격한 상태이고 실기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양한 회계 책, 마케팅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많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취업은 하고 싶지만, 너무 오랜기간 쉬어서 자신의 이름 석자가 불려지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두렵다면, 일단 취업 후에, 경력사원이 아닌 신입사원의 자세로 그 분야의 선배, 동료들께 많이 물어보며 실무를 익히셨으면 합니다. 경력자여서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취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경력자여도 새로운 곳에서는 새로운 직무와 업무능력, 그 회사만의 문화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업무 능력을 쌓는 시간보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 위한 마음의 다짐을 하셨으면 합니다.

두렵다고 용기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할테니까 말이죠 !

경력직이라서, 나이가 많다고, 예전의 잣대 때문에 자신의 홈그라운드 밖으로 나오기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석자의 가치를 다시 찾고 싶다면 일단 나오세요! 새로운 곳에서는 누구나 다 적응기간이 필요한 신입사원이기에 많은 질문을 해도, 때때로 실수를 해도, 열정이 있다면 그 변화가 곧 자신의 꿈으로 가까워옵니다. 많은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누구엄마가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가 불리며 자신의 꿈에 가까이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